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24. 4. 24.(수) ~ 5. 1. (수) /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 자치행정 및 문화관광 시책 발굴을 위한 -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2024.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 1. 출 장 국: 스페인·아랍에미리트
- 2. 출장목적: 자치행정 및 문화관광 시책 발굴
- 3. 출장기간: 2024. 4. 24. (수) ~ 2024. 5. 1. (수)
- 4. 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	
	부위원장	유인호	
	위원	김재형	
	위원	김충식	부의장
	위원	김현미	
	위원	여미전	
	위원	최원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전문위원실)	행정7급	한태희	
	행정7급	이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행정6급	권은경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	행정7급	염혜인	

목 차

I. 공무국외연수 개요

1. 추진근거	3
2. 출장개요	3
3. 주요 방문기관·시설	4
4. 기대효과	5
5. 세부일정	6

II. 방문국가 개요

1. 스페인 개관	9
2. 아랍에미리트 개관	12

III. 공식방문 결과

1. 코르도바 시립 관광연구소	17
2. 알페드레테 시청	22

IV. 현장방문 결과

【아랍에미리트】

1. 두바이국제금융센터	29
2. 인공섬 팜 주메이라	32

【스페인】

3. 톨레도 시청 및 구시가지	34
4. 세계문화유산 (알람브라)	36
5. 론다 구시가지	38
6. 세계문화유산 (세비야대성당)	40

V. 공무국외출장 후기

44

<참고> 2024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영상기록	63
--------------------------------------	----

I . 공무원국외연수 개요

1

추진근거

-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 (직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 의정담당관-2175(2024. 3. 26.)호,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허가(의원)’
- 의정담당관-2339(2024. 4. 1.)호,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허가(공무원)’

2

출장개요

- (기간) 2024. 4. 24. (수) ~ 2024. 5. 1. (수) / 6박 8일
- (국가)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 (목적) 자치행정 및 문화관광 시책 발굴
 - 스페인: 자치행정·재정·자치경찰 등 우수사례 파악, 세계문화유산 현장방문 및 문화·관광 정책 시찰 등
 - 아랍에미리트: 자치행정·사법·감독기구 통합 운영현황, 도시디자인 특화·관광정책 운영 등 우수사례 시찰
- (인원) 11명 (의원 7, 공무원 4)

소 속	직 위	성 명	역 할	비 고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위원장	임채성	○ 정책연수 계획 수립 및 기관방문 총괄	
	부위원장	유인호	○ 자치행정분야 사례 연구 - 자치행정분야 브리핑 및 질의	
	위원	김재형	○ 재정분권 및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사업 운영 현황 연구 - 예산 및 회계제도 관련 질의 등	

소 속	직 위	성 명	역 할	비 고
	위원	김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제도 운영현황 연구 - 자치경찰제도 관련 운영사례 질의 ○ 문화·관광 현장시찰 및 정책사례 연구 - 세계문화유산 활용 등 문화·관광 정책 현장시찰 - 문화·관광정책 관련 브리핑 및 질의 	부의장
	위원	김현미		
	위원	여미전		
	위원	최원석		
행 정 복 지 전문위원실	행정7급	한태희	○ 정책연수 계획수립 및 추진, 의원 지원 및 기관방문 현장 지원 총괄	
	행정7급	이 호	○ 영상촬영 등 정책연수 추진 지원 ○ 의원지원 및 자료수집 등 지원	
의 사 입 법 담 당 관	행정6급	권은경	○ 정책연수 추진 지원 ○ 자료수집 및 우수정책 정리 지원	
자치행정국 (시 청)	행정7급	염혜인	○ 정책연수 추진 지원 ○ 자료수집 및 우수정책 정리 지원	

3 주요 방문기관 · 시설

연번	일자	방문지	방문목적	비고
1	4. 25.(목)	두바이국제금융센터 팜 주메이라 등	< 현장 방문 > 자치행정·문화·관광 등 우수사례 파악	
2	4. 26.(금)	틀레도 시청	< 현장 방문 > 자치행정·재정운영 등 우수사례 파악	
3	4. 27.(토)	그라나다 알바이신 지구	< 세계문화유산·구시가지 현장 방문 > 문화유산 활용방안 등 우수사례 파악	휴일
4	4. 28.(일)	론다 구시가지 세비야 대성당	< 세계문화유산·구시가지 현장 방문 > 문화유산 활용방안 등 우수사례 파악	휴일
5	4. 29.(월)	코르도바 시립관광연구소	<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문화·관광정책 등 우수사례 파악	
6	4. 30.(화)	알페드레테 시청	<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자치행정·자치경찰 등 우수사례 파악	

4

세부일정

일자	도 시	방 문 지	내 용	비 고
4/24 (수)	세 종	(국가 이동)	• 의회(17:30) → 인천공항(20:30)	의회 차량
	인 천		• 인천국제공항 출발(23:05)	
	두바이		• 두바이국제공항 도착(익일 03:35)	항공
4/25 (목)	두바이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 자치행정·자주재정 강화를 위한 현장 방문 - 제도·운영 현황 등 우수사례 파악	전용 차량
		팜 주메이라 버즈칼리파 버즈 알 아랍	• 인공섬·특화디자인 건축물 등을 활용한 문화·관광정책 우수사례 파악	
4/26 (금)	두바이	(국가 이동)	• 두바이국제공항 출발(07:45)	항공
	마드리드		• 마드리드국제공항 도착(13:25) 후 이동	전용 차량
	톨레도	톨레도 시청	• 구도심 보존 및 활용 현장 방문 - 제도·운영 현황 등 우수사례 파악	
4/27 (토)	그라나다	세계문화유산 (알바이신 지구 등)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현장 방문 -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등 우수사례 파악	전용 차량
4/28 (일)	론 다	론다 구시가지	• 구시가지 및 기타 건축물을 활용한 문화 ·관광시설 현장 방문	전용 차량
	세비아	세계문화유산 (세비아대성당)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현장 방문 -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등 우수사례 파악	
4/29 (월)	코르도바	코르도바 시립관광연구소	•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제도·운영 현황 등 우수사례 파악	전용 차량
4/30 (화)	마드리드	알페드레테 시청	•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제도·운영 현황 등 우수사례 파악	전용 차량
	마드리드	(국가 이동)	• 마드리드국제공항 출발(15:25)	항공
5/1 (수)	두바이		• 두바이국제공항 도착(00:35) 및 출발(03:40)	항공
	인 천		• 인천공항 도착(17:00)	의회 차량
	세 종		• 인천공항(19:00) → 의회(21:30)	

○ 자치행정·자주재정 강화 방안 발굴

- 지역활성화를 위한 자치행정 및 재정 정책·제도 등 우수사례를 파악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응용·접목할 수 있는 시책 발굴

○ 문화유산 가치 증대방안 마련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기타 문화재 활용방안 등 시찰을 통해 관광 콘텐츠와 연계하는 관내 문화유산의 가치 증대방안 마련

○ 구도심 등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 도시디자인 및 구도심 활용 현황 등 특화 사례 수집을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 등 도시공간 활성화 방안 마련

○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모색

- 현지 자치경찰제도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효율적 안착을 위한 방안 모색

Ⅱ. 방문국가 개요

- (국 명) 스페인(Spain)
- (국가형태) 입헌군주국
 - ※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이며, 의회는 양원제(하원 350석, 상원 266석)로 구성
- (국경일) 10월 12일(Fiesta Nacional de España)
- (수 도) 마드리드(인구 약 328만명)
- (면 적) 505,370km²(한반도의 약 2.3배)
- (인 구) 약 4,859만명(2024. 1. 기준)
- (민 족) 라틴족
- (종 교) 카톨릭(94% 이상)
- (언 어) 스페인어(카스티야어, 공용어), 카탈루냐어, 바스크어, 갈라시아어, 아란어(이상 지역 공용어)
- (시 차) 서울보다 7시간 느림(서머타임 시행 중)
- (기 후) 사계절이 있고 지역마다 대륙성, 지중해성 기후 등 다름
 - ※ (봄) 3~5월, 기온 15~25℃, 우기, (여름) 6~9월, 30~40℃. 고온건조, (가을) 9~11월, 20~30℃, (겨울) 11~2월, 0~10℃
- (GDP(명목)) 1조 5,820억 달러(2023, IMF, EU집행위, 스페인정부)
- (1인당 GDP) 33,090달러(2023, IMF, EU집행위, 스페인정부)
- (경제성장률) 5.8%(2023, IMF, EU집행위, 스페인정부)
- (실업률) 12.9%(2023, IMF, EU집행위, 스페인정부)
- (총 교역액) 8,078억 유로(2023, 스페인 정부)
 - ※ 수출액: 3,836억 유로, 수입액: 4,242억 유로
- (화폐 단위) 유로(1€=1,480원, 1US\$=0.92€, 2024. 5.)

스페인 왕국(España, 에스파냐)은 남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이다. 스페인의 영토는 이베리아반도에 걸쳐져 있고, 수도는 마드리드이며, 면적은 505,990km² 으로 유럽 국가 전체에서는 4번째로 영토가 넓다. 인구는 2023년 기준 4,747만명으로 세계 32위(대한민국 5,174만명, 29위)이며 유럽 국가 전체에서는 6번째로 많다.

근대 시기 스페인은 세계 최초의 제국이 되었고, 많은 문화적, 언어적 유산을 남겼다. 2023년 12월 기준 50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가이자, 스페인어는 5억여 명 이상이 모국어로 사용하여 중국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국어이다.

스페인의 로마 시대 옛 이름인 히스파니아는 로마 제국의 일부였다. 중세 초반에는 게르만족의 지배를 받았고, 그 시기 이후에는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다. 오랜 전쟁 끝에 1492년 기독교도들이 다시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하였고, 같은 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다. 이후 절대 왕정 시대에 식민지 개척을 추진하여 스페인은 가장 강대한 제국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후 전쟁과 내분 끝에 전성기가 끝나고, 스페인은 20세기 초반에서 중반까지 프란시스코 프랑코 독재 정권 아래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하기도 했다. 1975년에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고 1978년 새로운 헌법을 바탕으로 스페인은 고도의 경제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이뤘다. 198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했으며 1986년에는 유럽 연합에 가입했다.

스페인은 세속 국가이자 민주주의를 도입한 국가로, 펠리페 6세를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국이기도 하다. 양원제 국회를 갖추고 있으며, 입법부가 있어 분권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국가 원수는 국왕이며, 상하

원은 직접·간접 투표로써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다.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이며, 부총리가 보좌한다. 스페인 내각의 수반인 장관은 총리가 지명한다.

스페인은 명목상 연방 국가가 아니지만 17개의 자치주와 2개의 자치시가 서로 다른 자치권을 누리고 있어 사실상의 연방 국가를 구성하고 있다. 스페인은 스위스 및 독일, 벨기에와 함께 유럽에서 지방자치가 잘 이뤄지고 있는 나라로 일컬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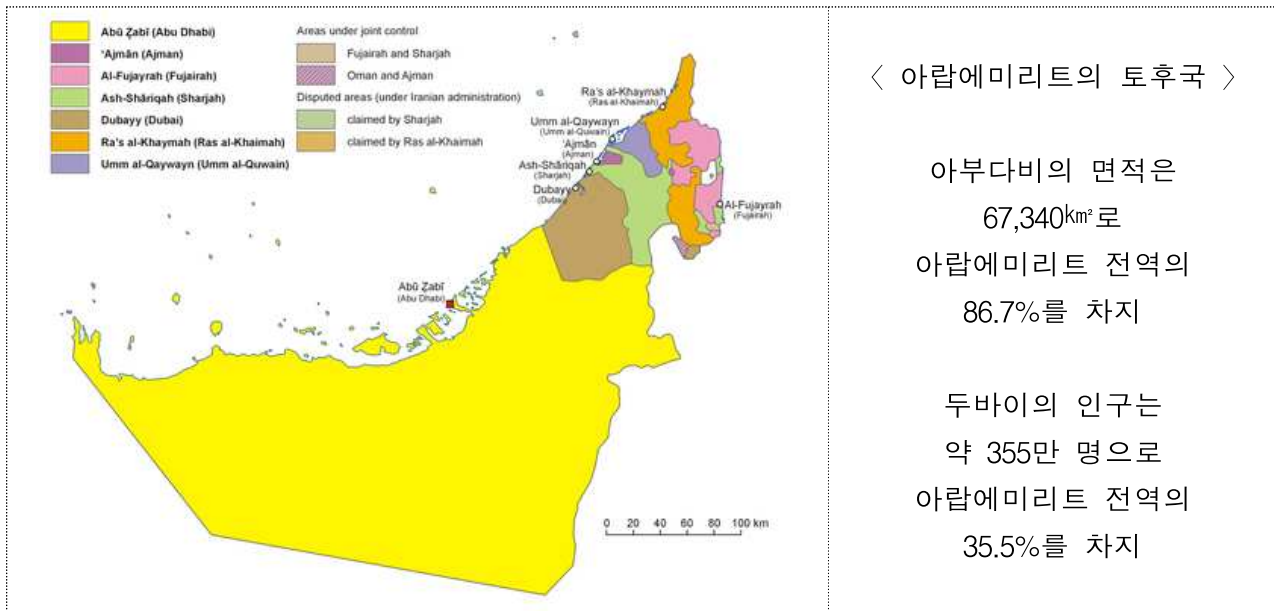
각 광역자치주의 기본 조직법은 자치법(Estatuto de autonomía)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역사에 바탕한 정체성, 영토 경계, 정부 조직 및 구성, 헌법에 근거한 권한에 따라 자치법은 광역자치주라는 명칭을 수립하고, 모든 광역자치주 정부는 입법의회, 행정의회, 최고재판소의 삼권분립 형태에 기반한다.

또한 각 자치지역정부는 과거부터 운영해오던 자치경찰제를 1986년 제정된 경찰조직법을 바탕으로 국가경찰, 국가군경찰 및 자치경찰의 체계를 다듬어, 점차 국가경찰이 각 지역에서 해오던 치안 활동을 자치경찰이 대체해가고 있다.

스페인의 관광산업은 세계 2위 규모로, 연 8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1천억 달러 이상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 지리적인 요인에 따른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다양한 사계절 기후, 적극적 시설 투자와 역사·문화 유적지가 결합된 다채로운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꾸준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개발과 실업률 저하에 기여하고 있다.

- (국 명)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 (정부형태) 연방제, 대통령 중심제
 - ※ 의회는 40명(여성 50% 의무화)의 연방평의회
- (연방창립) 1971. 12. 2.(영국보호령에서 독립)
- (국경일) 12월 2일(National Day)
- (수 도) 아부다비(Abu Dhabi)
- (면 적) 83,600km²(한반도의 약 1/3배)
- (인 구) 999만명(순수 UAE 국민은 약 100만명)
- (민 족) 아랍족, 외국인(아시아계, 이란계)
- (종 교) 이슬람(수니파 85%, 시아파 15%)
- (언 어) 아랍어(영어도 통용)
- (시 차) 서울보다 5시간 느림
- (기 후) 고온 다습(5~10월 35~45℃, 11~4월 15~35℃)
- (GDP(명목)) 4,295억 달러(2022, EIU)
- (1인당 GDP) 43,940달러(2022, EIU)
- (경제성장률) 7.9%(2022, EIU)
- (총 교역액) 7,322억 달러(2022, EIU)
 - ※ 수출액: 4,318억 달러(원유, 가스, 알루미늄), 수입액: 3,004억 달러(기계, 전자, 자동차)
- (화폐 단위) UAE Dirham(1DH=372원, 1US\$=3.67DH)

아랍에미리트연합국(United Arab Emirates, UAE)은 서남아시아의 아라비아반도 남동부에 있는 전제군주제 연방 국가이다. 북쪽 페르시아 만에 접해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이 사막에 위치해 있으며, 건조한 사막 기후를 보인다. 아랍에미리트는 세계적으로 원유를 사우디아라비아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산유국이다.



7개의 토후국(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지만, 움알쿠와인, 라스알 카이마, 푸자이라)이 연합하여 구성한 전제군주국가이다. 헌법이 명시한 최고 행정 및 입법기관은 '연방 최고회의'로 각 토후국의 통치자로 구성되고, 대통령과 총리 내각을 선출한다.

대통령은 임기 5년의 국가원수로 관례적으로 아부다비 통치자가 선출되고 아랍에미리트 통합군 총사령관을 겸직한다. 연방 총리는 내각의 수반으로 임기는 5년이며, 대통령이 제청하여 연방 최고회의 동의로 선출된다. 관례적으로 두바이 통치자가 선출되며 부통령직을 겸직한다. 아부다비 왕가인 알 나흐얀 가(Nahyan)는 연방정부 예산의 70%를 부담하고 있다.

18세기 각 토후국들은 영국의 보호령으로 들어가있다가, 1971년 12월 2일 6개의 토후국(Emirate)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창설하였고, 이후 1972년 라스알카이마가 연합에 합류했다.

1994년에는 미국과 방어 조약을 맺었으며, 몇 년 후에는 프랑스와도 방어 조약을 맺은 후 2008년 1월에는 아부다비 인근에 영구적인 프랑스 군기지 주둔을 허가하기도 했다. 아랍에미리트는 OPEC과 UN의 핵심 회원국이며, 걸프협력회의의 창립국으로, 대외정책 기조는 비동맹 중립 정책을 통해 각국 국내 문제에 불간섭하고 주권 독립 존중, 무력에 의한 점령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관광업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들 중 하나이다. 특히 두바이는 중동에서 세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이며, 두바이는 이러한 위상에 힘입어 아랍에미리트의 관광업 비중의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2020년 1월 6일에는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총리가 관광 비자를 이전의 30~90일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는 세계은행 조사 결과 2020년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16위로 선정되기도 했던 만큼 안정적인 정치체제와 미래지향적인 정부 정책, 훌륭한 기반시설과 정보통신 네트워크 등을 기반하여 기업들에게 최적의 활동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 차원에서 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아,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나라들 중 하나로 손꼽힌다.

Ⅲ. 공식방문 결과

1

코르도바 시립 관광연구소

□ 방문개요

○ (일 시) 2024. 4. 29. (월) 10:00~ 11:30

※ 기념품 전달: 다기 및 찻잔세트, 블루투스이어폰, 세종시 홍보물

○ (장 소) Instituto Municipal de Turismo de Córdoba

- 주소: C. Rey Heredia, 22, Centro, 14003, Cordoba, Spain

○ (내 용) 코르도바 시 문화·관광자원 활용 및 우수사례 공유 등

□ 기관현황

○ (설 립) 2017년 3월 28일 코르도바 시의회에서 설립

○ (운 영) 지방행정공공기관으로서 안달루시아 지방자치법 및 시행규정에 따라 기능적 자율성을 갖음

- 코르도바 시의 관광 홍보

- 회의장소 섭외 등 MICE 관련 기관 지원 및 행사 홍보

- 도시 관광 가이드 지원

- 코르도바의 다른 기관 및 단체 중개

- 의회 조직 담당 부서 접촉 등

□ 연수사진



현장 대담



기념 촬영

코르도바 시립 관광연구소 간담회 개최 결과

□ 인사말 요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방문을 환영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출범한 계획도시임
 - 특화된 도시디자인을 바탕으로 기존의 문화·관광자원과 결합하여 새로운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귀 기관을 방문하였음

□ 기관 설명 주요 내용

- 본 기관은 코르도바 시의회에서 설립한 문화·관광 전담 기관으로서 관광 분야를 담당하는 부시장이 기관장을 맡고 있음
- 코르도바는 옛 로마시대부터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이슬람 문화와 중세 카톨릭 문화의 유적 및 건물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
- 모스크로 건축되었다가 개조되어 현재 카톨릭 성당이 되어있는 메스키타가 유명하며, 세계문화유산으로 구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 지구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음
- 우리 연구소는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더불어, MICE 산업 지원을 위해 참여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관내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담당 부서의 지원도 하고 있음
-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동시에 매년 순회하여 지정되는 '유럽의 녹색수도 (European Green Capital)' 역할을 맡고자 준비 중에 있음

□ 주요 질의응답

○ 코르도바 전체의 세수 중에 관광산업을 통해 들어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 코르도바 세수의 30%정도가 관광산업을 통한 수입이라고 볼 수 있음

○ 코르도바에서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 비율은 어느 정도 인지?

⇒ 인구는 34만여 명으로, 그 가운데 약 4만 명이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 관광분야 중에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자연 관광 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세계의 관광 관련 박람회에 거의 다 참여하고 있음

○ 기존 관광 자원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어떤 관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 현재 VR 가상현실 등을 이용한 콘텐츠를 준비 중에 있고, 관광에 전문화된 AI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음

○ 세입의 30%가 관광산업으로부터 오는 수입이라 했는데, 관광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세출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 도시를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전체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세출예산이 편성되기에 관광 산업으로 구분짓기엔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기는 어려움

○ 코르도바가 '유럽의 녹색수도'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1년에 한 번 높은 수준의 환경 질을 달성한 우수 환경도시를 대상으로 '유럽의 녹색수도'라는 것을 유럽 전체 도시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는데, 선정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현재 준비하는 중이고 만일 선정이 되면 모범사례로서의 명예와 함께 유럽연합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관광산업 개발을 위한 타 사례 벤치마킹 등 방향이 있다면?

⇒ 다른 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는 스페인 정부의 중앙 관광청을 지원을 토대로 여기서는 무엇을 새롭게 짓는 것 보다는 우리 고유의 무엇인가를 엮으려 노력하는 중임

○ 코르도바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관광 홍보 전략이 있다면?

⇒ 주로 관광박람회에 참여해 문화, 유물, 안달루시아 말과 관련한 콘텐츠 그리고 세계적인 회의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도시임을 홍보하고, 미국과 중남미를 대상의 중심으로 하고 있음

○ 세종시와 코르도바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정책교류 등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 세종시와는 인구가 비슷하고 환경도 비슷하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간다면 양 도시에 상호 발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시사점

- 코르도바 역사지구에는 이슬람 문화권과 기독교 문화권의 유산이 혼재하는 곳으로, '메스키타' 주변의 모든 블록 내의 주택과 기념물 주변 거리, 그리고 거리에서부터 넓게 펼쳐진 토지들이 포함되어 198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임

- 세종시는 계획된 도시디자인 특화도시, 그리고 도농복합도시라는 두 가지의 특징을 지닌 도시로서, 코르도바의 그것과 비교한다면 특화된 세종의 도시디자인은 코르도바의 유산에, 세종의 구도심을 포함한 농촌지역은 코르도바의 자연환경에 빗댈 수 있을 것임
- 코르도바는 새롭게 무엇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유산을 보호하고 그 안에서 환경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을 만들어가고자 과거의 문화 유산 그 위에 VR이나 AI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입히려 노력하는 동시에 각국의 관광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해오고 있음
- 코르도바의 관광정책을 세종시에 직접적으로 접목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으나, 건축물 등을 새롭게 짓고 만들어내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관광자원을 담은 콘텐츠를 담아내는 과정이 있다면 세종시의 관광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유럽의 녹색수도’ 선정을 위한 코르도바의 노력에서 보듯 금년 후보도시로서의 예비사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을 대비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웰니스 관광도시’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 도시 선정에도 관심과 준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방문개요

- (일 시) 2024. 4. 30. (화) 09:30~ 10:30

※ 기념품 전달: 다기 및 찻잔세트, 블루투스이어폰, 세종시 홍보물

- (장 소) Ayuntamiento de Alpedrete

- 주소: Pl. de la Villa, 1, 28430, Alpedrete, Madrid, Spain

- (내 용) 자치행정 우수사례 공유 및 자치경찰 운영 현황 파악 등

□ 도시현황

- (위 치) 주도인 마드리드 시에서 약 46km 떨어져 있음

- (면 적) 12.64km² * 행정중심복합도시 72.91km² (세종시 전체면적 464.92km²)

- (인 구) 15,452명(2024. 4.)

- (역 사)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 오리엔테 궁전 등과 같은 기념물을 건축하기 위한 화강암 채석장이 있던 도시

- (특 징)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면적 대비 높은 인구밀도*

* 1,127명/km², 세종시 834명/km²

□ 연수사진



현장 대담



기념 촬영

알페드레테 시청 간담회 개최 결과

□ 인사말 요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방문을 환영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출범한 계획도시임
 -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분권 상징도시로서 마드리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지위에 있는 동시에 단일화된 기초자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자 준비 중에 있어 관련한 정책 마련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자 귀 기관을 방문하였음

□ 기관 설명 주요 내용

- 알페드레테 시는 예로부터 화강암으로 유명한 도시로서 유명한 궁전이나 사원을 짓는 질 좋은 화강암을 채굴하던 채석장이 있음
- 인구는 약 15,000여명, 면적은 12.6km², 해발 919m 높이에 위치해 있는 작은 도시로 약 7km²는 전원지역, 약 5km²는 주거지역에 해당하고 인구밀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풍부한 생태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시 둘레를 따라 마련된 마운틴 스토리 트레일스와 같은 자연과 야생을 경험할 수 있는 도보여행 코스와 이 지역에서 나온 화강암으로 만든 로마시대 유적지 등의 관광자원이 있음
- 교육과 복지에 중점을 두고 시의 특성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조례를 제정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주요 질의응답

○ 자체 입법권을 갖고 있는데 특징이 있다면?

⇒ 스페인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재정과 관련된 법령이 모두 다름. 예를 들어 쓰레기 배출세는 원래 없었지만 알페드레테와 같이 자연 보존을 중요한 정책으로 여기는 지역에서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 알페드레테에도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지? 만일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히 진행하는 정책이 있는지?

⇒ 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노인센터를 4개의 소도시가 함께 운영하고 있고 알페드레테 시는 매년 40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고 주 정부에서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스페인도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응 정책이 있다면?

⇒ 가장 큰 부분은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매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알페드레테의 경우 한 명당 매월 100유로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녀를 둘 이상 낳으면 다자녀 가정으로 분류되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음. 또한 부모 각각 4개월의 육아 휴직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 중임

○ 또 다른 복지정책이 있다면?

⇒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도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10세 이하 및 65세 이상 시민에게는 모든 주 정부에서 운영하고 교통요금이 무료이며 26세 이하 청년은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있음

○ 현재 알페드레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 시 재정만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 개량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상수도세 및 하수도세를 부과하고 있음

○ 자치경찰 운영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 국가경찰, 시민경찰(국가군경찰), 자치경찰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국가경찰과 시민경찰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음. 국가경찰은 규모가 큰 도시에 운영되고 있고 시민경찰은 프랑코 독재시절 만들어진 조직으로 군대조직처럼 운영되는 조직으로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 자치경찰은 주에서 운영했었는데 최근 주 경찰도 해체해 각 시 산하의 자치경찰로 변경했음

○ 국가경찰, 시민경찰, 자치경찰 각각의 업무는?

⇒ 독자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연계를 통한 업무추진이 있을 때도 있음. 국가경찰은 주로 규모가 있는 상황에서의 국민 안전에 관련한 업무를 책임지며, 기소권을 갖는 시민경찰은 테러, 마약, 세관, 정치부패사건 등을 주로 맡고 있음. 자치경찰은 소속 지방 정부의 법규범 준수를 주 역할로 하고 있음

○ 알페드레테에는 자치경찰 인력이 어느정도 있는지?

⇒ 29명의 자치경찰이 있고, 다른 시와 구역을 합쳐 관리하는 시민경찰이 있음. 국가경찰은 없음

○ 자치경찰의 채용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 채용시험은 주 정부 차원에서 치러지고 채용은 각 시장이 하고 있음

○ 자치경찰이 범죄나 교통에 대한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데, 벌금이 전부 시 재정으로 가는지? 그리고 주 정부에서 설치한 CCTV가 있다면 그 CCTV로 단속한 건에 대한 벌금도 전부 시의 재정으로 가는지?

⇒ 처음 단속되었을 때에는 계고를 하나 다시 적발됐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벌금의 70%는 시 재정으로, 나머지 30%는 국가 재정

으로 들어감. 주 정부에서 설치한 CCTV로 단속된 경우 벌금의 70%는 시 재정으로, 나머지 30%는 주 정부로 귀속되고 있음

- 시의원이 시청의 각 분야 부시장이 되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정해지고 또 그럴 경우 시의회의 견제 역할은 어떻게 가능한 건지?

⇒ 절대 다수당에서 당내 추천순위에 따라 시장, 1부시장, 2부시장 순으로 맡아 각 분야를 담당하게 되고, 시정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결국 전부 여당의 인사가 됨. 2개월에 한 번씩 의회에서 회의가 열리나 안건들은 다수결로 결정되기에 실질적으로 야당이 견제할 방법은 없음

□ 시사점

- 현재 스페인은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양육수당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2자녀 이상은 다자녀가정으로 분류되어 많은 혜택을 받는 등 육아, 교육은 무상이 되다시피하는 적극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반면 그 세금의 수준이 40%에 가까워 우리나라의 약 1.6배 정도에 달하고 있어 시민들의 근로의식 등이 해이해져 가는 측면도 드러나고 있음
- 스페인은 연방군주제의 형태의 국가지만 자치분권화가 잘 되어 있는 만큼, 각 지방정부에 전래 고유의 자치경찰제도가 경찰조직법 등을 바탕으로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그것보다 오늘날 더욱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고, 그 형태도 각 지방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 스페인의 지방정부는 선거를 통해 다수를 차지한 정당의 시의원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있어, 다수당이 되기 위해 합종연횡을

통해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음. 따라서 여당의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장을 비롯한 각 분야의 부시장을 다수당에서 차지하게 됨에 따라 시정을 향한 의회 등 외부의 견제는 불가능하다 볼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스페인의 자치분권 제도에 비하면 현재 지방자치분권의 상징 도시이자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의 자치분권 관련 제도적 자율성은 조직, 재정 등 모든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그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수준인 것은 사실임
- 향후 지속적인 세종시법 개정 등을 통해 보다 고도화된 자치권과 자치재정, 자치조직권 등을 확보해나가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현재 답보상태인 자치경찰제도에 있어서도 스페인의 사례를 보다 깊이 연구하여 세종시에 맞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구상해보고 적용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IV. 현장방문 결과

□ 방문개요

- (일 시) 2024. 4. 25. (목) 10:30~ 11:00
- (장 소)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DIFC)
 - 주소: Sheikh Zayed Rd, Trade Centre, DIFC, Dubai, UAE
- (내 용) 두바이국제금융센터의 독립적 운영 현황을 통한 재정제도 및 규제개혁 방안 고찰

□ 기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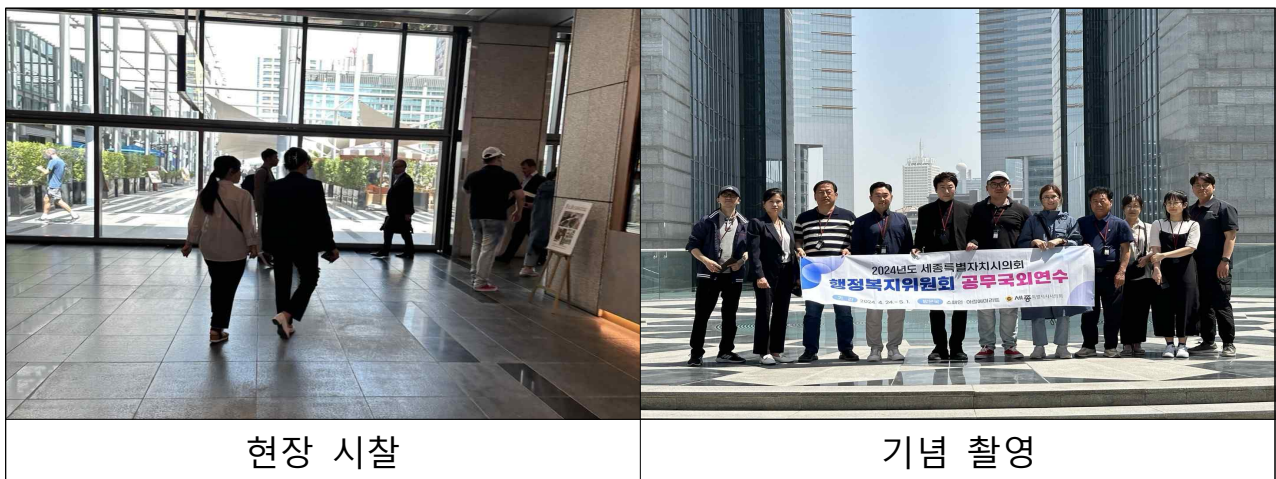
- (설 립) 두바이의 대통령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의 주도로 2004년 설립한 역외 국제금융 자유무역지대
- (현 황) 글로벌 10위권이자 중동·아프리카·남아시아지역 1위인 국제금융센터*로서 5,500개 이상의 금융, 보험, 핀테크,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유치

* 국제금융센터(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란 국제자금의 차입 및 대부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지역으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정보, 전문인력, 관련 실물경제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집중 및 파급되는 과정을 통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특성을 지님

- (운 영)
 - DIFC 운영 및 관리를 총괄 감독하는 DIFC관리청(DIFC Authority), DIFC 내에서 시행되는 금융 및 관련 서비스를 규제하는 두바이 금융감독청(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독자적인 사법권을 행사하는 DIFC법원(DIFC Courts) 등의 독립기구 및 DIFC 런던 국제중재법원(DIFC LCIA)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아랍에미리트(UAE) 헌법에 따라 독립관할권을 부여 받아 두바이 에미리트 및 UAE 연방정부와는 별도의 사법체계가 적용됨
- DIFC는 역외금융센터로 이슬람 율법에 위배되는 이자 수취 등의 금융제도를 인정하고, DIFC의 모든 공문서는 영어로 표기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DIFC 특별법을 제정해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법률 분쟁을 DIFC 법을 통해 처리함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해 외국인 지분 100% 소유를 허용하며, 법인 설립 후 5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외환송금의 제한이 없음 * 2024년도부터 0~9%한도 내 법인세 차등 부과 예정
- DIFC는 금융산업 집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부대시설을 구축하고 사무 구역 외에 호텔, 고급 주거 빌딩, 리테일 숍, 고급 레스토랑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모여 있는 복합생활공간으로 설계되어 대면 만남과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최적화 되어 있음

□ 연수사진



□ 시사점

- UAE는 디지털혁신을 통해 장기적 성장동력이 될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두바이를 암호화폐 산업의 허브로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 2022년 3월초 최초의 세계적 수준의 가상자산자산
규제법 “Dubai Virtual Asset Law”를 발표했음

- 이와같이, 두바이는 DIFC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해 법적 제도를 과감히 만들어가고 그에 맞는 규제기관 등을
설립함으로써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
었음
-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서 2018년 12월 세계 최초
스마트시티 국제인증(ISO37106)을 받아 규제 제약 없는 다양한
스마트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한편으로 자족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해 기업유치 등에도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DIFC의 운영사례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어떠한 성과를 보일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할 것임
- DIFC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에 기반한 이슬람 금융법에서
금지한 이자 수취 행위를 허용하고, DIFC 내에서는 이슬람어가
아닌 영어를 공식언어로 사용하며 외국인 지분 100%를 인정 및
법인세 면제 등 파격적인 제도와 더불어 독립된 입법·행정·사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10위권의 국제금융센터로 성장했음
- 이에 자족도시로서의 기반구축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서의
성공을 위해서 DIFC의 금융산업 집적화 전략 등을 참고하여 규제
샌드박스의 활성화,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제도적 수정, 유망한 외국
스타트업 기업 유치 등 다양한 가능성을 특별자치시라는 정체성
아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방문개요

- (일 시) 2024. 4. 25. (목) 09:00~ 10:00
- (장 소) Palm Jumeirah
 - 주소: Palm Jumeirah, Dubai, UAE
- (내 용) 부족한 지리적 관광 자원 확장을 위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국제적 관광 명소 구축 사례 시찰

□ 방문지 현황

- (설 립) 두바이 정부 소유 기업인 나킬이 페르시아 만에 만든 야자수(Palm) 모양의 인공섬으로 면적은 6.5km²이며, 2001년 6월 건설이 시작되어 2006년 처음으로 거주단지가 분양되었음



- (현 황) 육지와는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고 섬과 섬 사이는 해저 터널로 이동할 수 있으며,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원형섬은 모노레일로 이어져 있음
 - 줄기 부분에는 아파트 및 상업시설이, 가지 부분에는 개인 소유가 가능한 별장들이 들어서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최근 쌍용건설이

만든 ‘아틀란티스 더 로열’ 호텔을 포함한 호텔과 리조트, 고급 식당들이 주로 들어서 있음

□ 연수사진



□ 시사점

- 동일한 사막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긴 해안선을 가진 아부다비에 비해 72km에 불과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던 두바이는 해안선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인공섬을 만들기로 함
 - 그리고 초창기 단순한 섬모양의 디자인에서 해안선을 더욱 길게 만들기 위해 야자수 모양으로 디자인을 변경하고 방파제 역할의 섬을 만듦으로써 78km의 해안선을 새롭게 만들어냈음
- 사막지역에서 해안선을 새롭게 만들어 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 자원으로 탈바꿈시킨 두바이의 팜 주메이라는, 창의적 발상과 적극적 도시개발 전략 추진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임
 - 계획도시로 새롭게 만들어진 세종시는 역사성을 지닌 관광·문화 자원 보유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볼 수 있겠지만, 팜 주메이라는 사례와 같이 부족한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을 통해 장기적인 도시개발 전략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겠음

□ 방문개요

- (일 시) 2024. 4. 26. (금) 16:00~ 18:00
- (장 소) Ayuntamiento de Toledo
 - 주소: Pl. Consistorio, 1, 45002 Toledo, Spain
- (내 용) 구도심 활성화 사례 시찰

□ 방문지 현황

- 톨레도 구시가지는 1986년 11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톨레도 역사지구 특별계획을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약 6년에 걸쳐 수립하였음
- 톨레도 역사지구 특별계획은 구시가지 내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공간의 개선을 목표로 엄격한 경관 보존구역을 설정하고,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건축물의 색채, 형태, 자재 등에 강한 규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음
- 관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 내 거주민에게만 차량 통행을 가능하게 하고, 외부 방문객을 위한 대형 주차장과, 거주민을 위한 소형 주차장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구간은 보행자 전용 도로로 지정했음
- 특별계획 수립 이후 약 30여년이 되어가는 현재 가옥 복원 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은 대폭 개선 되었고 1990년대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했을 당시 인구가 1만명도 되지 않았던 톨레도는 2023년 말 기준 86,070명이 거주하고 있음

□ 연수사진



□ 시사점

- 스페인은 우리나라의 계획체계에 비해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을 상당 부분 인정하기에 지역 특색을 살린 계획들의 추진이 용이한 부분에 가장 큰 차이가 있겠지만, 보존 가치가 있는 개인 소유의 건축물은 개인이 지켜 나가야 하는 유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역사적 인식이 또한 달랐음
- 세종시는 신도시구역 외에 기존 읍·면지역의 일부를 함께 가지고 있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역시 하나의 큰 과제로 갖고 있는 도시로서 톨레도의 사례는 구도심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는 것임
- 톨레도의 경우 「톨레도 역사지구 특별계획 조례」와 「톨레도 역사지구 특별계획 집행 관련 건물 및 주택 보수(개조) 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 세종시의 경우에도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통해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균형발전계획의 방향성을 확고히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 방문개요

- (일 시) 2024. 4. 27. (토) 14:00~ 18:00
- (장 소) Alhambra
 - 주소: C. Real de la Alhambra, Centro, 18009 Granada, Spain
- (내 용) 세계문화유산 관광정책 활용 방안 시찰

□ 방문지 현황

- 알람브라(아랍어로 '붉은색')는 스페인 그라나다에 있는 궁전과 성곽의 복합단지로 1238년부터 1358년 사이에 지어졌으며 1984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유럽에 현존하고 있는 이슬람 건축물 중 가장 뛰어난 궁전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음
- 알람브라의 대부분 건물은 폐쇄적인 건축을 지양하여 작은 전각도 중앙을 향해 드러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는 언덕의 굴곡을 없애 평평하게 하였고 내부에는 고도 차이를 이용해 웅장함을 만들어 냄

□ 연수사진



현황 청취



기념 촬영

□ 시사점

- 알람브라는 중세 이슬람 건축물 그 자체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담고 있지만 또 하나, 이슬람 정원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곳임
 - 대부분 사막 기후로 물이 귀한 아라비아 지역 사람들에게는 물을 볼 수 있고 과일이 열리며 시원한 그늘이 있는 곳이 바로 지상 낙원이었던 것만큼, 정원은 건물 가운데 중정을 두고 수압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다양한 분수와 수로로 나타나는 수경 시설을 두었음
 - 또한 식물은 녹음수와 유실수를 즐겨 심어 사이프러스, 대추야자 등 녹음수와 오렌지, 석류, 무화과 등의 유실수가, 장식적인 화훼류는 허브류와 백합, 튜립, 자스민 등이 식재되어 있음
- 알람브라를 둘러보는 동안 중정들의 크고 작은 분수와 수로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물 흐르는 소리’는 방문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청량감을 들게하는 효과가 있었음
 - 세종시는 여러 크고 작은 광장과 공원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이 광장과 공원들은 높고 낮은 건물들 사이의 하나의 중정과도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광장과 공원들에 시각적 어트랙션을 더해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나간다면, 시민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쉼을 더해줌으로써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되는 방안이 될 것임
- 덧붙여, 파라도르(Parador Nacional de Turismo)는 국영 관광호텔로 스페인 정부에서 고성이나 궁전, 귀족의 저택 등 역사적인 건물을 호텔로 개조한 곳으로 대부분 중세 유럽 분위기의 건물이며 각 지역에서 가장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

- 그라나다에서는 알람브라 궁전 일부를 파라도르로 이용하고 있고 방문객들이 체류하며 알람브라를 비롯한 알바이신 지구 등 그라나다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있음
- 체류형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세종시에 있어 스페인의 파라도르와 같이 역사성이 있거나 혹은 특수성이 있는 건물을 활용한 공영 숙박시설의 운영 방식 또한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5 론다 구시가지

□ 방문개요

- (일 시) 2024. 4. 28. (일) 11:00~ 13:00
- (장 소) Puente Nuevo 등
 - 주소: Pl. España, 29400 Ronda, Málaga, Spain
- (내 용) 구시가지 관광정책 활용 방안 시찰

□ 방문지 현황

- 론다(Ronda)는 해발 739m에 위치한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 말라가 주의 도시로 인구는 33,980명(2018년 기준), 면적은 481.31km²이며 말라가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함
- 론다 인근 쿠에바데라필레타(Cueva de la Pileta) 동굴에서 동굴 벽화가 발견되어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기원전 3세기에는 고대 로마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장군에 의해 요새화되었고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대에는 도시 칭호를 받음

- 론다는 투우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고, 특히 1784년에 건설된 신 고전주의 건축 양식의 투우장인 론다 투우장은 스페인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투우장으로 여겨지며, 그밖에 1759년에 착공하여 1793년에 준공된 누에보 다리 등의 문화 유산이 남아 있음

□ 연수사진



□ 시사점

- 론다는 협곡에 놓여진 거대한 누에보 다리를 기준으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나뉘어져 있고 절벽 자체가 도시의 경관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화려한 궁전이나 번화가는 없지만 자연과 어우러지는 경관 그 자체를 보기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음
- 인구 3만 3천여명의 작은도시로 관광자원이 많은 편은 아니나, 신시가지와는 다르게 구시가지의 모습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관광지로 유명한 세비야와 코르도바 사이에 위치하여 동선 상 방문이 용이한 점은 론다 시가 관광수입을 얻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러한 부분은 세종시의 관광 정책에 있어 시사점을 주는 바, 중장기적으로 백제문화유산 관광권에 속한 인근의 도시들과 협력하여 세종을 경유하는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임

6 세계문화유산 (세비야 대성당)

□ 방문개요

- (일 시) 2024. 4. 28. (일) 16:00~ 18:00
- (장 소) Catedral de Santa María de la Sede
 - 주소: Av. de la Constitución, Casco Antiguo, Sevilla, Spain
- (내 용) 세계문화유산 관광정책 활용 방안 시찰

□ 방문지 현황

- 스페인 안달루시아 세비야에 있는 로마 가톨릭 대성당으로,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정식 명칭은 성모 마리아 주교좌 대성당(Catedral de Santa María de la Sede)이며, 세비야 대성당이라는 통칭으로 불림
- 이슬람의 모스크를 성당으로 바꿔놓았기에 다른 성당들과는 달리 폭이 넓은 편으로 전 세계 성당 중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브라질 아파레시다 대성당에 이어 3번째로 큰 성당이며, 스페인의 성당 중에서는 가장 큰 성당임
 - 대성당은 11,520m²의 면적을 차지하고, 첨탑의 최고 높이는 42m이며, 특히 96m의 높이의 세비야 대성당의 종탑인 히랄다탑이 있음

-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으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르네상스, 바로크, 네오 고딕 등 여러 양식이 반영되었으며,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부분의 길이는 약 126m, 너비는 약 83m의 규모로 내부에 있는 무덤 가운데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관도 안치되어 있음

□ 방문지 현황



□ 시사점

- 세비야 대성당에는 개척자이자 학살자로도 유명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관과 그의 둘째아들의 무덤이 있고 그 둘에 대한 서로다른 (콜럼버스의 실제 유해는 다른 곳에 있다는 설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가이드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각 국의 언어로 안내되고 있었으며, 압도적인 규모의 파이프오르간에 대한 설명 역시 ‘실제의 소리를 들어보면 바랄 것이 없겠다’는 관광객들의 대답을 얻어내고 있었음
- 세비야 대성당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이나 그 안에서 또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스토리’였고, 어느 역사유적이나 스토리는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 지역 또는 인물, 사건 등과 긴밀하게 엮여있을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자원으로써 역할을 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음

- 세종시는 출범한 지 10여년이 조금 넘는 수준의 신생 도시로서 신시가지의 새로운 역사와 구시가지가 담고 있는 기존의 역사가 각각의 스토리를 담고 있을 것이나, 아직 그 발굴 단계는 초기에 머물러 있음
- 이에 세종학 사업 및 마을기록 아카이브 사업 등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스토리들이 발굴 될 수 있는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힘을 싣고, 문화체육관광국 및 문화관광재단 등 관련 부서·기관들은 그 결과물을 연계하여 관광 자원들과 결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살펴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V. 공무원국외출장 후기

지방의회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필요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6박8일 동안 국외연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번 연수의 목표는 아랍에미레이트와 스페인 2개 국가 7개 도시를 방문해 자치행정·자치경찰 및 문화·관광시책을 발굴하고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빠듯한 일정에 적지 않은 목표를 세운 만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단은 사전에 연수 목표 달성에 최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들을 섭외했고, 방문 국가와 도시에 대한 기본정보를 파악했으며, 기관방문과 면담에 시간적 제약이 있는 만큼 성과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질문목록을 만들어 해당 기관과 공유했습니다.

연수 기간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를 시작으로 톨레도 시청, 론다 및 세비야 등지의 세계문화유산을 현장방문하고, 코르도바 시립관광연구소와 알페드레테 시청을 공식 방문해 관계자 면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소통하면서 일회성 방문이 아닌 다양한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상대 기관들도 이에 깊이 공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가 전개되면서 지방외교 활성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외교는 국가외교를 보완해 더욱 효과적인 외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지방외교를 통해 경제·환경·문화, 청소년·교육 등 지역주민의 삶과 밀착된 다양한 분야에서 다층적·다원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지방정부가 국제교류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교류·협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제13조제2항제7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제47조제1항제10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과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93조부터 제195조까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18개국 19개 지역, 충남도의회가 6개국 14개 지역, 경기도의회가 6개국 11개 지역, 인천시의회가 7개국 9개 지역 등과 이미 활발한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세종시의회는 아직 중국 구이저우성 1개

지역과 교류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대상 국가와 지역의 범위를 더욱 다양화하고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연수 기관방문에서 우호관계 지속과 교류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현재 스페인의 코르도바와 마드리드 2개 시와의 분야별 우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코르도바는 세종시와 인구규모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지구 등 천년의 역사를 품은 다양한 문화유산의 산실로 문화관광 분야에서의 활발한 정책교류와 협력으로 상호 번영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드리드의 경우 우선 자치경찰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종형 자치경찰 모형의 발전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코르도바와 마드리드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의회 차원의 국제교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 세종이 국제사회에 글로벌 국제교류 거점도시로서 위상을 갖추는데 일조하길 기대합니다.

스페인의 자치경찰 제도와 세종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인호

우리 연수단이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즈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중장소 테러 위협 경고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세계유산이나 축구경기장 같은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곳에서는 국가경찰이 순찰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고, 그런 곳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역의 자치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스페인은 공공질서유지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이 책임지고 있으나, 각 지방정부에서는 자치경찰이 우선적으로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프랑코 독재정부가 무너진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 헌법에서 각 지역 주 정부의 폭 넓은 자치권을 인정해 왔고, 그 결과 경찰분야에 있어 각 자치지역정부는 지역 차원의 경찰조직을 확대하여 과거 국가경찰의 치안활동을 점차적으로 대체해 오고 있다.

특히 카탈로냐, 바스크 등 자치지역의 독립성이 강하고 재정적인 자립도를 갖추고 있는 자치지역들이 선도적으로 자치경찰을 확대하여 국가경찰의 치안활동을 대신하고 있다.

또한 마드리드 주 경찰이 최근 없어지고 주 산하 각 기초정부의 자치경찰로 흡수 운영되고 있는 상황처럼, 주민 5천명 이상의 기초정부는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자치경찰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초자치경찰을 다시 부활하는 기초정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주 정부 차원의 법령을 통일적으로 적용해 시장의 책임하에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1차적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정부의 자치경찰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스페인의 자치경찰제도가 진행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자치경찰은 지방공무원의 한 직군으로, 일반 지방직공무원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교육훈련 및 퇴직제도 등도 지방공무원으로서 동일한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페인의 자치경찰은 자치정부가 제정한 자치법규 등의 법령 준수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게 되지만, 빌바오 시 같은 경우, 마약 단속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찰이 있음에도 자체적인 마약퇴치 특수경찰조직을 만들기도 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는 아직 시작단계로, 전체적으로 담보상태에 있다. 이에 세종시는 새로 출범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하는 단계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에 관한 기본제도가 수립되지 못한 상태지만,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할 분야를 고민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2024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연수 후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김재형

1. 두바이

두바이가 석유산업을 근간으로 세계적 대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으로 화물과 여객의 교통 중심지로 발전하고 이에 따라 두바이국제공항은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고 거쳐가는 곳으로 하늘은 비행기, 땅에는 관광객으로 가득 차 보였다.

두바이가 교통의 중심지이자 혁신적인 대형 건설 프로젝트(부르즈 할리파), 국제스포츠 행사 등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관광객들의 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국제공항이다. 세종시에는 공항이 없지만 인근 청주에 청주국제공항이 있다.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을 세종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는 세종, 대전, 충남, 충북이 서로 합심하여 청주국제공항이 대

한민국 중심에 위치한 만큼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CTX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 청주국제공항에서 세종으로 접근성을 개선하여 관광객의 유입을 원활하게 해야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청주국제공항은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운항이 되고 있는데 부분도 더욱 확대하여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미주 등에서도 운항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세종시에서는 문화관광재단이 있고 관광협회가 있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패키지를 개발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인만큼 그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축물이 세종을 대표할 수 있고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건축양식으로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주요 관광도시지역에는 도시관리 측면에서 관광버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도시 인근지역에 관광버스를 주차하고 관광객들이 도보 및 대중교통(택시) 등을 이용하여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세종시는 도로 폭이 좁고 인도폭이 넓은 환경에 현재도 시민들의 차

량으로 정채되는 구간이 많은데 차후 국회세종지사당 건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발달, 그리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 정원도시박람회 등을 앞두고 이러한 방식은 세종시에도 적용해 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스페인에서는 1928년부터 관광지역 중심으로 국영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영호텔 중심으로 주요 관광시설을 방문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관광지를 대표하는 숙박시설로 인식되어져 있다.

알함브라 궁전 및 론다 지역 방문시 국영호텔을 운영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영 호텔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나 지자체 차원에서 유스호스텔 또는 리조트 등 관광숙박시설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부족한 숙박시설 및 비싼 숙박시설의 대안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세종시에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황에 시 직영시설로 유스호스텔 또는 리조트를 건립하여 운영한다면 세종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공실상가들을 이용한 건물들을 활용하여 숙박시설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플라멩코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전통적인 민요와 향토무용, 그리고 기타 연주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 보여주는 민족예술로, 스페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필수로 관람하는 문화 체험이다. 이번 연수에 우리도 체험하게 되면서 느꼈던 것이 세종시에서는 수목원, 호수공원, 이웅다리 등 건축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물적자원을 가지고만을 관광상품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인적자원과 무형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해야할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물론 전통공연인 풍물놀이, 판소리, 국악연주 등이 있지만 이것을 관광상품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는 세종시의 탄생, 세종대왕, 세종의 역사 등을 활용하여 창작뮤지컬, 창작판소리, 풍물놀이 등을 개발하여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세종을 홍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된다.

이를 위해 세종시립극단을 창단하여 예술의전당 및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다면 세종시만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전통성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또한 세종예술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예술분야 인재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시에서 지역예술인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역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코르도바 시립 관광연구소가 있는 코르도바에는 3개 문화재가 있어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새로운 관광문화를 만들기 위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관광문화의 중심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새로운 기술이란 AR·VR을 활용한 가상현실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 기술을 도입하여 전세계 관광객들이 코르도바를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코르도바를 홍보하는 것인데 우리 세종

시도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VR, MR, XR 콘텐츠를 제공하여 글로벌 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시범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잘 진행하여 세종시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세종시를 실제 방문하기 전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세종시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현실에서 느끼지 못할 궁금증을 만들어 내어 실제 방문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코르도바에서는 세계관광박람회에 참여를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세계관광박람회에는 전세계 여러 국가들이 참가하기에 국가간의 관광협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동시에, 홍보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었다. 우리 세종시도 이러한 박람회 참가를 통해 세계 여러 도시들과의 관광교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스페인 '파라도르'에서 세종시 관광산업 활성화의 해법을 찾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김충식

스페인의 론다는 인구 약 4만 명 정도 규모의 작은 도시로 스페인의 국기(國技)인 투우의 발상지로 유명하다. 스페인 최초의 투우장으로 유명한 '토로소 데 론다' 주변은 늘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누에보 다리도 '토로소 데 론다'와 함께 전 세계 관광객들이 론다를 찾게 만드는 대표적인 명소이다. 누에보 다리는 론다를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누는 120미터 깊이의 엘 타호 협곡 위에 놓인 거대한 다리로 그 위에 서서 한참 동안 까마득한 협곡과 그 위에 자리잡은 건축물들, 그리고 그것들과 어우러진 풍경을 바라보노라면 눈앞에 펼쳐진 환상적인 장관에 저절로 감탄이 나오고 이토록 훌륭한 유산을 물려받은 스페인 국민들이 진심으로 부럽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누에보 다리 왼쪽 절벽 위에는 '파라도르 데 론다'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건물 하나가 자리잡고 있다.

'휴식처'란 의미의 파라도르(Paradore)는 오래된 고성이나 아름다운

수도원 등 스페인의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 건물을 개조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호텔로 스페인 전역에 98개 정도 있다.

파라도르에서는 휴식은 물론 스페인의 역사와 문화까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비수기에는 10만원 이하의 가격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요금이 합리적이고 관리도 수준급이다.

나는 이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타구스강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톨레도 시내 전경을 호텔 객실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파라도르 데 톨레도’,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등지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알함브라 성채의 내부에 위치한 ‘파라도르 데 그라나다’를 비롯해 최고의 위치와 전망을 자랑하는 ‘파라도르 데 룬다’까지 세 곳의 파라도르를 시찰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세종시 관광숙박업의 열악한 현주소를 떠올렸다.

지금 세종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팸투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종시가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려면 그에 걸맞는 관광숙박시설의 다양화 전략도 꼭 필요하다. 체류형 관광의 시대인 만큼 잠만 자고 떠나는 특색없는 비즈니스형 호텔만으로는 결코 세종시의 관광산업 발전과 이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견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지자체들이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과 경제 활력을 위해 다양한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의 하나로, 한강 교량 위 전망 카페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호텔로 개조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현시점에서 호텔 자체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곳,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여행지가 되는 곳, 즉 스페인의 파라도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스페인 못지않은 우리만의 특색있는 ‘파라도르’를 개발하고 이곳을 세종에서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해주는 곳으로 만든다면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세종시 관광숙박업 활성화를 위한 우리만의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출산 문제에 대한 스페인의 대응 방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김현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스페인은 육아휴직을 부모당 4개월로, 양도할 수 없고 100% 유급 휴가를 받는다. 그리고 스페인 남녀 근로자 모두 각 16주의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본인의 출산휴가 모두 법정 기본임금의 100% 유급으로 정부에서 지원한다. 주어진 출산휴가는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현재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법적 인정과 경제적 측면의 지원과 제도의 필요성도 절감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근 일부 가족이 아닌 전국의 모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커다란 패러다임 전환을 하였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대해 한부모 가족은 양부모의 휴가를 모두 누릴 수 있으며,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이 빈곤의 위험을 높이지 않도록 각 지자체마다 금액은 다르나

자녀 1명당 매월 지원금이 각 가정에 지급되고 있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 받아 세금 및 공공요금 등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며, 자녀가 있는 사실혼 관계의 가정 역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대가족으로 인정받아 그동안 받지 못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스페인은 국민들이 저출산율 문제를 인식하고 아이들이 더욱 양질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교육과 양육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스페인의 전문가들은 학생 수의 감소에 전략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한 반의 인원 수를 줄이는 교실 혁신을 실천하거나 교사당 배정되는 수업 시간을 단축하여 교사 수의 감축을 피하자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출산율 하락에 따른 학생 수 감소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 아래 정부 차원의 공교육 활성화와 통합교육을 통한 돌봄 교육, 국제교육과 포용적 이민정책 등 다양한 융합정책 역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을 위한 스페인의 교육정책과 변화에서 세종시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할 때다.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미전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먼저, 세종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 문제는 시민들의 입을 통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교통의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을 동시에 고려한 해결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두바이의 인공섬 팜 주메이라가 제시한 지상 모노레일 시스템은 향후 개발될 지역에 있어 대안의 한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향후 스마트시티와 결합하여 효율적인 대중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또하나의 옵션으로, 모노레일은 친환경 운송수단이자 스마트 그리드와 연계한 무인 운전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차선으로 설계된 세종시의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이자 관광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스페인 여러 도시의 구시가지를 둘러보며 느낄 수 있었던

공통적인 생각으로, 세종시의 읍·면지역 옛가옥 복원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세종시의 읍·면지역은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많은 옛가옥들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옛가옥들은 현재 많은 곳에서 방치되어 있거나 파괴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하나의 해결책으로 옛가옥을 복원 또는 수선하여 공공형 관광 숙박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유산 보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스페인의 ‘파라도르’처럼 이러한 방식의 개발은 관광객들이 옛가옥에서 숙박하면서 인근 지역 문화와 전통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현지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도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유산의 보전에도 기여하여 장기적으로 세종시의 관광자원을 담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와 지역 주민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대안들을 검토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시민과 광장, 그리고 정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최원석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연수는 긴 비행시간과 긴 버스탑승시간도 힘들긴 했지만 무엇보다 많이 걸었던 연수였다.

공작새를 직접 마주했던 두바이 첫 방문지 ‘셰이크 모하메드 왕궁’ 입구 앞 광장에서부터 스페인을 떠나기 전날 들렀던 ‘푸에르타 델 솔’ 광장까지 많은 광장들을 걷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광장은 시민 문화와 함께 발달했다. 시민들이 모이는 집회광장을 비롯하여 기념탑이나 조각이 세워진 기념광장, 주택의 밀집지역에 있는 생활광장, 교차로나 역전의 교통광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으로 쓰인다. 그래서 어느 도시 건축학자는 광장을 ‘도심 속의 허파’ 라고 부르기도 했다 한다.

스페인의 여러 광장들을 걸으며 우리 세종시의 광장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광장이라 불리울 수도 있고 공원이라고 불리울 수도 있는 그런 곳들을.

문득 깨닫게된 것은, 구시가지의 광장들임에도 지하에 유료주차장을

마련했다는 부분이다. 사람들이 광장 그 자체와 광장 주변 상가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광장 주변의 혼잡을 줄이고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각 광장마다 함께 하고 있는 크고 작은 분수들이나 정원들이다. 분수에서 만들어 내는 물소리는 마음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듯했고 푸른 정원들은 바라만 보고 있어도 답답했던 무엇인가가 트여나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였던지 연수 후기를 담은 유튜브 동영상에서 난 정원이 정갈하게 잘 가꾸어진 한 광장에 서서 우리시의 국제정원박람회가 잘 준비되기를 응원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공간은 개방성과 더불어 삭막하지 않은 따스함을 품은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 긴 시간을 내다보고 세종시의 많은 광장들이 시민들에게 편안함과 여유를 줄 수 있도록 어떤 다양한 형태로든지 물소리와 정원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참고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영상기록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스페인

<https://youtu.be/rgelsKvxiY4>

